

가정 예배 모범

- 2022_12_18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전도서 12장 1~ 14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전도서 저자는 언제,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1절)?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삶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한 시기로 자기중심적이고 쾌락 지향적인 삶을 살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인생의 가장 풍성한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허무함으로 귀결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할 뿐입니다. 삶의 전성기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소유이며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13절)?

삶의 허무를 노래하던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전도자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경외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허무하게 보이던 인생에 참된 의미가 발견되고,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와 삶의 자세가 회복되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